



다산인권센터
창립30주년 기록집

오늘도

인권을

찾아



다산인권센터
창립30주년 기록집

오늘도

인권을

찾아

CONTENT

한결같이, 하루를 열다

4 간밤 그 기사 봤어요?

8 인권을 짓는 마음
다산인권센터
운동다짐문

든든하게, 인권법상

20 다산이 지어온
인권의 법상

22 인권이슈 대응 활동

29 코로나19, 낯선 시대를
인권으로 건너는 법

32 노동권 활동

38 다산과 반올림
서로의 곁이
되어준 인연

44 지역 활동

51 기업의 생명파괴,
무엇이 위험한지
알 권리가 있다.

55 시민참여와
조직화 활동

단짠단짠

62 여기 국정원이 있다

66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70 수원시립미술관
명칭변경운동

달콤새콤

80 우리의 밥상
'밥 먹고 하자!'

84 다산의 산책길
햇볕과 바람에
마음을 말리는 시간

88 온 동네가 들썩들썩,
만두잔치

**함께 짓는,
모두의 밥상**

98 창립 30주년 토론회
'다시, 인권운동을 묻다'

106 내일의 인권밥상

**들러왔은 밥상
_2022년
활동가들의 마음**

112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운동

**저절로
익는 것은 없다
_1992~2022**

120 다산이 걸어온 길

122 주요활동

**달보다
늦게까지**

127 걱정마,
내일도 잘할 거야

한결같이,
하루를 열다



간밤 그 기사 봤어요?

2022년 8월 말 어느 아침.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갓 내린 커피향이 가득하다.
평소라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밤 본
TV 프로그램이나 출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시끌벅적했을 사무실이 오늘따라 조용하다.
사무실을 가득 채운아침 햇살이 무색할 정도로
활동가들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날 아침 상임활동가 채팅방에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생활고에 또 비극…수원 다세대주택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를 공유한 활동가는 채팅방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기사 내용 좀 살펴보고 다산에서
뭐라도 해보면 좋겠네요 ㅠㅠ”

출근길에 기사를 읽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았지만 간간히 한숨 소리만 들릴 뿐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세 모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을 때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막막했는지 오직 마음으로부터
헤아려 볼 뿐이다.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시스템도 만들고 복지 관련법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걸까?”
“사회취약계층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걸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만 주면 할 일을 다 한 걸까?”
“수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산에서는 인권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들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이야기의 물꼬가 터지자 활동가들은
각자의 생각과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날 한 번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다.
우선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들의 삶을 기리는 시민추모제를 준비해보기로 했다.

“내가 단체들에 추모제 제안하는 연락을 돌려 볼게요.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각자 좀 더 고민한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한 활동가가 휴대전화를 챙겨들며 이렇게 말하자
다른 활동가들도 각자의 잔을 들고 일어섰다.

“여보세요, 여기 다산인권센터인데요, 오늘 그 기사 보셨어요?
우리 뭐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인권을 짓는 아침이 시작된다. 🏠

우리 뭐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산

인권센터

운동

과치분

운동다짐문

“ 역사가 낡은 옷이 되지 않도록
인권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낙관과 환대로 서로를 북돋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

카페 플로리안.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로 1720년에 문을 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유럽 여행 중 베네치아에 갔을 때, 당시에는 커피를 그리 즐기지 않았고 카페 밖 야외 테이블을 오가며 연주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들르지 않았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포.

노(老): 늙을노

포(鋪): 가게, 점포

대를 물려 내려오는 점포

지금은 증명되었지만 한국의 오래된 노포를 찾아다니며 오랜 기간 대를 이어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맛의 비결을 찾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 중 한 명이었던 박찬일 셰프는 ‘노포의 비결은 주인의 몸이 고된 것에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대를 이어 한결같은 맛을 내는 비결은 좋은 식자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노고가 크고, 그 번거로움을 묵묵히 견디며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내가 백년식당에서 배운 것들》, 《노포의 장사법》에서도 변하지 않는 맛의 비결을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기분을 지키는 것. 하다못해 소뼈 씻고 피 빼는 일도 항상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년.

다산인권센터가 30년을 맞았습니다. 아직 노포의 반열에 올랐는지 알 수 없지만 30년전통 인권맛집을 표방하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인권의 맛을 지어나가기 위한 인권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운동다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운동다짐문 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조금씩 쌓아왔습니다. '비전간담회'라는 이름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권단체 활동가, 사회단체 활동가, 지역단체 활동가, 다산 전임 활동가들과 함께 5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전간담회를 통해 다산의 역할, 성과와 과제 등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2022년 들어 비전간담회와 30주년 연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4월 20일 내부워크숍을 진행하고, 이후 4월26일과 5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운동다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5월부터 6월까지 4차례 내부논의를 통해 2022년 다산인권센터 운동다짐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운동다짐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주년을 맞았던 2012년에도 운동다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권운동과 인권현장에 서야 할까? 이런 생각을 거듭할수록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왠지 모를 무거움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짐문 여는 글에 녹여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30년이라는 녹록치 않은 시간이 무거운 짐이나 낡은 과거가 되는 대신 오늘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요.

운동다짐문은 모두 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4가지는 다산이 지향하는 인권운동의 원칙과 방향에 해당되고, 나머지 2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인권운동을 위한 조직운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낡은 옷이 되지 않도록
 인권현장을 지킵니다.
 부당함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낙관과 환대로 서로를 북돋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인권
 Humanrights

우리가 처음 사랑한 이유는,
 남장을 할때 부딪혀 흔들리는 바깥이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산책해서 안내야 할
 30만년 진부의 깊은 땅속에서 살던 그 생명어
 단장피에 보글보글 끓어 넘치는 차세대시간이
 물러지도 못이지도 않는 그대로 활태까지
 사람은 원래 없고 뭐고 일지 이윤이 왜 필요있어?
 다르다고 무너져야 할 이유가 댄 뭐니도 있는
 이들을 향해, 지금 일할 말러가야 할 이유밖에 없기 때문
 이 지금 그대로 사랑한



곁에서 단단하게

인권의 현장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산 활동의 많은 부분은 다양한 인권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박하지만, 소외된 그 현장에 함께 서서 서로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편을 갈라 세우고, 밀어내는 모진 말 대신 인권의 언어로
끊임없이 세상에 말을 걸고 그 힘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섬세하고 배짱있게

사회문제를 섬세하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인권의 이슈와 영역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혹은 잘 도드라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현상에 붙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예민함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겠습니다.
동시에 배짱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자본이든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어 세상과 함께

정의롭고
존엄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으고
실천합니다.

다산은 경계 없는 유연한 활동을 지향합니다. 그동안 다산은 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지역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만나고 활동해왔습니다. 인권문제는 경계와 영역을 구분하여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현장에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존엄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계를 넘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에서 보살보살하게

시민들과 만나고
행동하며, 지역에
인권의 발랄한 목소리가
넘치게 합니다.

지역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은 다산의 중요한 활동기반입니다. 인권 이슈의 특성상 전국적 사안에 대응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산이 자리하고 있는 수원과 경기 지역은 중요한 활동의 토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전국 단위 인권 이슈를 지역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삼성 노동권 문제, 원천리천 물고기폐사, 수원시립미술관 명칭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대응해왔습니다. 인권이 일상에서, 삶 속에서 실천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고 실천과 방향을 모색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을 지역에서 시민들과 발랄하고 활기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정부 지원금, 기업 후원금 0%.

다산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는 다산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자 든든한 배경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겠습니다.

다산이 당당하게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로를 북돋우며 기운차게

**평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조직을 지향합니다.
활동을 통해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습니다.**

다산은 평등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조직 내 위계나 직책을 두지 않고, 1인이나 소수에게
대표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활동의 성과나 역량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단체의 역량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가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활동을 통해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습니다.
서로를 북돋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편부당하고 부정의한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곁을 지키는 사람들과
 낙관과 환대로 서로를 복돋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에는 양보가 없는 그런 활동의 궤적을
 여전히 그려가고자 합니다. ”

운동다짐문을 작성하면서 든 또 다른 생각은
 다짐문이 일회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숙제처럼, 끝내버리지 않고 활동 속에, 실천 속에 녹아들고,
 꺾대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운동다짐문이 활자에 갇히지 않고 활동을 통해
 살아 실천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30년전통 인권맛집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도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인권의 맛을 내는,
 그리고 누구든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노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노포로 익어가고 싶습니다. 🏠

다산은 고소하고
풍미가 가득한
‘표고버섯전’ 맛집



“

다산 활동의 독심을 생각하면 다산의 활동가들과 함께 했던 지리산 둘레길 등구재 초입의 길목에서 먹은 표고버섯이 떠오릅니다. 별다른 기교 없이 그저 두툼한 표고버섯에 밀가루 옷을 입혀 무심히 기름에 부쳐낸 듯 하지만 뜨거운 표고버섯전을 가위로 잘라 입안에 넣으면 고소한 기름의 맛과 함께 씹을수록 버섯 본연의 향긋한 풍미가 입안에 가득 차 탄복을 자아내는 맛. 인권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늘 치열하게 투쟁하는 다산에게 제격입니다.

”

등산친구. 낙타 벳바리님



다산은 약방의 감초

“

다산인권센터를 떠올리면 감초가 생각나요. ‘약방의 감초’란 말처럼, 감초는 한약을 지을 때 꼭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주민 사망사고 문제에,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에, 대우조선 투쟁에, 쿠팡노동자 투쟁에... 내가 갔던 투쟁 현장에는 늘 다산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이라는 틀로 자신을 한정짓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의 활동을 만들어내어 우리의 투쟁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다산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

인권약사, 조윤미(알프) 벤틀리님

든든하게 인권밥상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지어온 인권밥상들

다산이 지어온 인권의 밥상

예전부터 사람들은 ‘식사하셨냐?’라는 말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밥은 생존과 존엄한 일상의 상징이자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수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길고 긴 고민과 토론 끝에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을 ‘30년전통 인권맛집, 오늘도 인권을 짓다’로 정했다. 밥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난 30년간 수원 지역을 지키며 인권 운동을 해온 다산인권센터의 역사를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고집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온 식당에 비유한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전통의 맛집처럼 다산 역시 인권의 현장을 누비며 매일 정성스레 인권을 지어왔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다.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메뉴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식당처럼 다산도 권력과 자본에 타협하거나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 상황에 맞게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창립 초반 노동 상담 및 시국 사건 법률지원에 집중했던 활동이 밥과 국, 한두 가지 간단한 찬으로 구성된 기본밥상이었다면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등으로 점차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활동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좀 더 다채로운 밥상을 차리게 되었다. 반찬의 가짓수와 국의 종류도 많아지고 좀 더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진 한 상 차림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요리도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권맛집의 메뉴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 다산 인권맛집에 어떤 메뉴들이 추가되었으며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이었을까? 무슨 재료로 어떤 새로운 인권의 맛을 만들어 왔을까?



편의상 지난 10년의 활동을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첫 번째는 전국적 인권사안에 대한 활동으로 소위 ‘내란음모’ 사건 대응,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활동, 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 활동 등을 대표적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지역운동으로 수원촛불, 원천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 활동, 수원시립미술관 명칭 변경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및 반차별 운동을 위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활동과 같이 경기 남부 및 수원지역에서 해온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다산이 창립 때부터 꾸준히 해온 노동인권 영역으로 반올림 연대 활동, 직장 내 괴롭힘 관련사건 대응,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 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 영역은 시민참여 활동으로 다산이 진행했던 다양한 인권강좌와 자원활동가 모임, 인권영화 상영회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 활동들로 그동안 다산이 지어온 다양한 모양과 풍미의 인권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와 권력 기관에 날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매운 맛부터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자본에게 보여준 쓴 맛, 혐오를 선동하는 차별주의자에게 건네는, 미간이 절로 찌푸려질 신맛까지. 주로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는 강렬한 맛과 요리를 선보여 왔지만 다산의 모든 활동이 그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권에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깊은 맛을, 연대의 장에서 만난 동지들에게는 자꾸만 생각나는 단짠단짠의 맛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평등의 맛을 대접해왔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산이 지어온 인권의 맛을 음미하러 가보자. 🏠

공탕처럼 빈틈없이 부글부글,

인권이슈 대응 활동



사람들에게 다산을 소개할 때 흔히 ‘종합인권단체’라는 말을 쓴다. 노동단체나 환경단체처럼 특정 영역의 문제를 다루거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단체처럼 특정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는 활동이 아닌, 그때그때 터지는 인권 침해 사건이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다산의 활동 스타일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 2000년 다산인권상담소에서 다산인권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한 이후부터 ‘종합인권단체’ 다산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인권 이슈 대응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해왔다.

다산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연대’이다. 대부분의 인권단체가 그러하듯이 다산 역시 인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단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연대체를 조직하거나 제안이 들어온 연대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활동가의 수가 적다보니 매번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역력이 되는 선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방식이 바로 연대체 활동이기 때문이었다. 활동가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도 다산의 연대 활동에 기동성을 더해주는 요소였다. 최근 몇 년간은 활동가들 사이에서 연대도 좋지만 다산의 독자적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는 여전히 다산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운동방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영역을 가리지 않는 왕성한 활동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연대의 힘을 펼쳐온 다산의 인권활동 중 최근 10년간 주목할 만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활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4.16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이다. 2014년 참사가 발생한 직후 수원지역에 시민분향소를 차리는 것부터 서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준엄과 안전위원회’ 활동, 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많은 서명전, 도보행진, 4.16인권선언운동 및 피해자 인권실태조사 작업 참여까지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16연대 창립 후에는 운영위원 역할도 맡고 있다.



2017년 1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열린 수원촛불집회 현장

수원지역에서는 매년 4월 16일마다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기획·진행하였고, 수원 4.16연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 공동행동과 수원4.16연대에 함께하며 지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세월호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사 700일을 맞아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수원역에 304켤레의 신발을 전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고, 시민들과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도 다녀왔으며, 참사 8주기는 화성 광장에서 ‘4.16 진실의 연날리기’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운동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에 2021년에는 수원 지역의 4.16 운동을 담은 기록집 ‘그날

이후 멈추지 않았다’도 펴냈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을 다산인권센터 혼자서 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지역단체들이 함께 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다산의 활동이 세월호 운동, 특히 수원 지역의 세월호 운동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세월호 참사 초기 전국적 활동들, 특히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활동들이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세월호 참사를 인권이라는 관점을 통해 보고 그러한 관점이 지역의 세월호 운동에 최대한 녹아나도록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필요할 때마다 세월호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상



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얼마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침몰 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월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다산의 다산의 세월호 활동 내용을 과거형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이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대응



2014년 2월 진행된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있는 피해자들

다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활동으로 2013년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응이 있다.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해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정치 쟁점화되던 시기였기에 대부분 이 사건을 터뜨린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인다고 여겼지만, ‘내란음모’의 실체라고 드러난 ‘RO’와 녹취파일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대대적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죄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한국 사회에 공포정치와 마녀사냥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 모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이 사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다산인권센터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동의하는 몇몇 인권단체들이 모여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가족 심층 인터뷰 작업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25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 2월에는 보고회도 진행하였다.

비록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다는 점 하나만으로 이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고통 받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프로젝트

2020년 8월,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 현장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너무나도 오래된,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인권 사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활동에 다산이 함께한 사례도 있다.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 유물과 같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프로젝트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회’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의제가 낫선 젊은 세대 그리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연대기를 정리하고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피해 당사자로 온전하게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 서사에 주목하였다. 2019년, 먼저 국가보안법 피해 여성들의 구술을

채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역사도, 경력도 되지 못한 사연들이 쌓여갔다.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폭력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향해 묵묵히 걸어온 여성들의 역사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_여성 서사로 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 전시되었다. 그 외에 총 9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분석·정리한 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72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전시회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월에 예

정했던 전시회를 한 차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8월에 겨우 오프라인 전시를 열 수 있었지만 방문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물론 온라인 전시관과 VR 전시관을 열어 직접 전시회장을 찾지 않고서도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전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그 현장에서 이 전시를 볼 때의 그 느낌이 온라인으로는 온전히 전해지지 못할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

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다. 이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국가 폭력의 희생물이 되었는지, 이 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관심은 점점 멀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주는 이런 활동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전시회의 제목처럼 그런 활동이 모이고 모여 언젠가 이 세계를 터뜨릴 테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

2020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직원 7명이 법인의 후원금 보조금 횡령 혐의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눔의집 문제가 시설을 넘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몇몇 단체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점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법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눔의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임시 이사회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눔의집 ‘정상화’는 공회전을 거듭하였다.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려 했지만 사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공익제보 직원들은 법인이 남발한 고소·고발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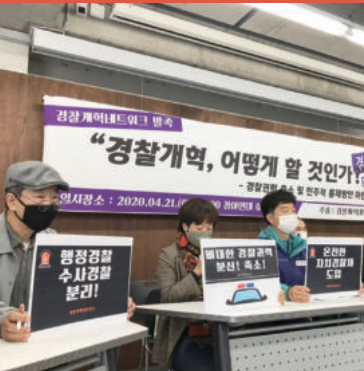


그런 상황에서 다산은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직원들의 재판대응을 위한 법률기금을 모으는 동시에 후원자들에게 드릴 선물로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다산이 주축이 되어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모금을 진행하였고, 인터뷰집 제작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법률기금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개별 직원들의 이야기와 이들을 변호하고 계신 변호사, 독립연구활동가의 글을 담은 인터뷰집 ‘지극히 평범한 선택’은 공익제보자들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다. 다행히 현재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나눔의집 정상화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들은 강제로 사직이나 휴직을 당한 상황이다.

나눔의집 관련 활동을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동이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생각처럼 문제 해결이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나눔의집에서 지내는 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든다. 다행히 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나눔의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눔의집이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활동 외에도 다산은 수많은 인권 이슈에 함께 해왔다. 인권 침해의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그러한 침해를 만들어내는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것은 다산인권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다산의 인권이슈 대응은 가스불 위에서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곰탕과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커다란 솥에 한 번 끓여놓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깊어지는 곰탕처럼 다산도 언제든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활동력으로 어디서든 제 몫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다산은 오래 우려낸 곰탕과 같은 활동으로 권력에게는 입천장이 데일 것 같은 뜨거움을, 인권에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속이 든든해지는 깊은 맛을 보여줄 것이다. 🏠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산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0년 4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2018년 8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무죄판결을 규탄 기자회견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수원행궁 앞에서 피켓팅 중인 활동가들과 주민들

코로나19, 낯선 시대를 인권으로 건너는 법

‘단 한명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와 함께 온 인권의 문제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했다. 웃고 있을까. 무표정일까.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기분을 알 수 있었던 감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탓이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는 일상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는 것,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관계의 기본적 절차가 사라지니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더 이상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코로나19라는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된 듯했다.

그 세계는 냉혹하고 잔인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 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집중되었고, 그들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확진자, 사망자, 격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과 구체적 삶이 숫자로 집계되었고 그 숫자의 높고 낮음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적절한 때에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감염병의 피해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연결과 연대보다는 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쉽사리 퍼지는 사회였다. 언젠가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 속 삭막한 세계는 이미 우리 앞에 도래해 있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실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존재에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대책은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어졌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과 공개, 감염이 확산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차별과 혐오, 통제를



앞세운 지방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 등 인권의 현실이 후퇴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감염병의 위기 앞에서 오랜 시간 어렵게 쌓아왔던 인권의 원칙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기본적 권리들은 유예되었다. 대응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없었다. 유례없는 사태란 명목 앞에서 강력한 정책이 호응을 얻고, 그 과정에서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도 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다산인권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코인넷)를 결성하였다.

코인넷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과 공개,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격리와 통제 중심의 강제적 조치, 공공의료, 주거, 노동의 권리, 재난 시기 위기 소통에 관한 문제부터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여성, 홈리스, 수용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문제까지 코로나19와 연결된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중보건 위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지워지는 인권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필요한 권리들은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방향을 제안하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의료공백, 노동권, 추모와 애도의 행동 등 코로나19로 드러난 다양한 인권의 문제에 입장을 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코인넷 활동을 통해 다산은 감염병 상황 속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 지역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지역의 경험을 만나다.

다산은 2021년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부족했던 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좀

2021년 10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중심의 일상회복을 촉구하는 코인넷의 기자회견



더 주목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거리두기가 중심인 방역 정책에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비적정 주거에 놓여 있고,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은 휴대기기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재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만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진행한 전수조사 행정명령 등 차별과 불평등에 뿌리를 둔 방역 정책도 이들의 경험에 집중해야겠다고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다산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기지역의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24명의 노숙인,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원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코로나19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듣고,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경험한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난개발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더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다가 올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그 상황에서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마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 다산은 2020년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1년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동일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경기도 재난 인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이다. 재난 인권보장기본 조례는 재난 시기 필요한 권리 보장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최대한 평등하게 재난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명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다. 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산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좀 더 잘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의 용기 있는 시도가 앞으로 조우 할 미지의 세계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마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

코인넷 기자회견에 참여한 말라 활동가



호박엿처럼 다산과 딱 붙어 있는,

노동권 활동

노동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다산인권센터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이었다. 입 안 가득 넣으면 입천장이나 이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호박엿처럼 노동권 관련 활동은 다산과 딱 붙어 있는 활동이었던 것이다. 처음 다산인권상담소를 개설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역노동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상담소 시절에는 주로 노동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에 집중했고, 이후 노조 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지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담·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이후 IMF 등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노동조건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다산은 시대변화에 맞춰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증가, 대량해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일터 괴롭힘 등 점점 더 열악해지는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에 대응하



는 활동을 해왔다. 다산 내부에 ‘노동 인권팀’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관련 활동을 하고, 노동권과 노동법 관련 공부도 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나누었고, 노동과 인권의 만남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아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교육교재 <노동자 이 교대씨의 생존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인권운동 단체들과 ‘노동권팀’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 결합하고 노동권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대응하는 활동도 해왔다.

다산인권센터의 노동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삼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일이었다. 삼성이 수원에 위치한 이유도 있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념이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 권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가 다른 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다 해고된 노동자, MJ(문제)사원으로 지목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 등과 함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에 힘을 쏟았다. 2007년에는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님의 사건을 계기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싸워왔다. 이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1년에는 삼성노동조합, 2014년에는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결성 등을 지원하며 무노조 삼성에 노동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인지 지금은 삼성 계열사 곳곳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22년에는 삼성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삼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다산인권센터는 노동 사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활동에 힘을 쏟았다.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진여객 문제해결 수원시민대책위원회,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확장을 위한 경기이주공대위 등 지역 사안에 결합하였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작성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일터 괴롭힘, 방송업계 제도개선 문제 등 노동운동 안에서 새로운 의제에 주목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도 해왔다. 그 중 몇 가지 주요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_ tvN사망사건대책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하루 24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방송업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찌는 듯한 여름의 더위와 차가운 겨울의 칼바람을 견디며 사람들에게 웃음, 눈물, 감동,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한 현실은 방송업계라는 화려함 뒤에 가려져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tvN신입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대책위는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근본 원인인 부당하고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에 주목했다. 대책위는 이한빛 PD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방송업계 제도개선을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 고 이한빛pd 유서 중

tvN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이한빛 PD가 남긴 마지막 호소는 드라마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산인권센터는 청년유

그 과정에서 대책위는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인터뷰에 참가했던 누군가는 '이 바닥이 원래 그랬다'며 짧은 제작 기간과 드라마 제작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했다. 단기간에 고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군대식 조직문화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오랫동안 쳇바퀴 돌듯 반복된 업계의 관행이 고유한 시스템처럼 자리 잡아버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희

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대책위는 증언을 통해 드러난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웃고 즐기는 시간을 위해 카메라 뒤의 누군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시민들의 관심과 대책위의 노력, 방송업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합해져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tvN 사측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졌다. 이후 유가족들은 방송 현장의 부당함에 대해 대응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누군가의 삶의 끝자락에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2007년 봄이 시작될 무렵, 강제 단속으로 수원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 중이었던 터키인 코스쿤 셀림씨는 관리소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다. 낯선 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을 기리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지역시민단체들은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였던 당시에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이 정부 정책 차원으로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크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코스쿤 셀림씨의 사망은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닌 무리한 강제 단속과 추방이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제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망사건 대책위를 전환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이주공대위)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노동조건,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거리 상담, 선전전,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지역의 이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 보장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 모든 것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료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

인종, 국적,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 혐오의 경험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저리기도 하고 선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2021년 기준 한국사회에는 200만명 정도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존재하는 듯했다. “이주노동자가 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농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책 <깎아 투쟁기>의 한 구절처럼, 우리가 만난 이주노동자라는 존재는 ‘노동’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노동자이기 전에 삶과 꿈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을 통해 그들의 삶 전체를 마주해야 한다고 본 이유이다. 다산은 미등록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 자체를 보기로 했다. 그런 고민을 담아 경기이주공대위는 2017년과 2019년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기록해 책으로 엮어내는 ‘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주민 구술생애사를 두 차례 발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함께 살아간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담은 견고하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부재했고 차별과 혐오는 더욱 심각해졌다.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제도적 차별도 여전하다. 커커이 쌓여온 차별과 경계는 쉽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이주민, 정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환대의 씨앗을 뿌린다. 언젠가 담이 허물어져 꽃이 움트길 바라며.



2017년 1월,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진행된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지난 30년 동안 다산은 어떻게 하면 노동권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쟁의 현장에 함께해왔다. 다산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과 활동이었지만 현안 위주의 대응이 이어졌을 때는 헛헛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떠한 관점과 고민을 가지고 노동 사안에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도 있었다. 단순히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동한다’는 문제의식을 넘어 다산이 고민하는 노동권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 30주년 보고서에서도 ‘노동인권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후 노동권 활동에 대한 오래된 고민과 문제의식을 정리해 노동과 인권의 새로운 마주침을 만들어 가는 구체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이다. 🏠

다산과 반올림 서로의 곁이 되어준 인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다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단체이다. 반올림의 창립부터 직업병 피해에 대한 사과·보상·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23일간 이어간 농성까지 반올림의 역사 곳곳에 다산과 다산 활동가들의 흔적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자리에서 다산과 반올림 서로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문서로 정리한 적은 없었다. 이번 기록집을 준비하면서 반올림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꼭 실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과 직업병 피해 당사자.
왼쪽부터 권영은 활동가, 이상수 활동가, 한혜경 님, 김시녀 님, 이종란 활동가**

늦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 구로의 반올림 사무실에서 반올림 상임활동가 영은, 비상임 활동가 종란 그리고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님과 어머니 김시녀 님을 만났다. 2년 전 이사 온 이 사무실은 첫 방문이었는데, 혜경 님과 어머니도 처음 오시는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또 이사를 가야한다니, 안정적 보금자리가 없는 단체의 설움이 이런 걸까 싶었다. 인터뷰 전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물로 사간 케이크도 나눠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산인권센터와 반올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종란 다산과의 인연의 시작은 꽤 예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저는 2005년 정도에 처음 다산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산하 노조와 경기법률원에 있었는데, 다산이 다양한 지역 노동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구요. 삼성 노동자 핸드폰 위치 추적 공동대책위원회, 신세계 이마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감금미행·노조 파괴 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 함께 활동했어요. 노동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민주노총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인권단체가 노동 사안, 특히 노동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절로 친근함이 생겼죠.

2007년에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님이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원시민신문 기자한테 했고, 그 기자가 다산인권센터를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렇게 그해 여름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제가 황상기 아버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미 씨와 아버지의 사연을 듣게 된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유미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인지 걱정도 됐지만 우선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보자고 박진 활동가가 제안을 했어요.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다산 이름으로 제안서를 돌렸고, 2007년 11월, 19개 단체가 모여 삼성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게 반올림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겁 없이 삼성에 덤비는 다산이 함께 했기에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백혈병이 산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워낙 전문적인 영역



의 일이고 삼성의 현장 은폐에 맞서야 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 외로 많은 단체들이 모였고, 정말 더 신기한 건 우리에게 연락해오는 제보자들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있는 혜경 씨도 그렇게 만나게 됐죠.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다산은 항상 함께 해줬어요. 그게 참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42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산과 반올림의 인연이 생각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반올림도 올해로 창립 15주년인데, 그 역사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올림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산과 관련된 이야기면 더 좋구요.

종란 2009년도에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이란 걸 했어요. 여름에 농활 가듯이 여름 현장 학교를 열어서 보건의로 학생들과 같이 반도체 공장 앞과 인근 도심에서 선전전도 하고 그랬죠.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반

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 황민웅, 고 이숙영 님 추모제’를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 때 다산의 모 활동가가 집회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중요한 행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이후에 조사든 뭐든 협조하겠다고 경찰과 협상을 하고 행사를 치렀어요. 이후에 수원 남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기로 형사와 이야기를 마쳤죠.

얼마 후 삼성 본관 앞 집회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저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아줘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왜 나를 잡으려 하는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2월 29일 이견회에 대한 사면이 발표되는 날 집 앞에 잠복해있던 서울 종로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체포당했어요. 집회 신고 없이 추모제를 했다는 이유로요. 다행히 규탄 성명이 빠르게 나오고 이 소식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당일 석방되기는 했지만 당시 삼성과 경찰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혜경 우리 농성할 때 다산의 랄라 활동가가 아들 지호를 데리고 농성장에 왔던 게 기억나요. 랄라가 말 하는 거 들으면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시너 지호가 농성장에 와서 마이크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꿈이 뭐냐고 하면 ‘노동자가 꿈’이라고 말하곤 했잖아요. 농성 초반에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일 덕분에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농성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농성 초반에 정말 힘들고 정신없을 때 랄라는 농성장에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랄라

뿐만 아니라 다산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힘을 많이 줬어요.

영은 어머니가 농성장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어요. 생각해보면 반올림 농성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재능이 잘 발휘됐던 것 같아요. 저도 반올림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른 사람들에게 반올림 활동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랄라에게 배운 게 많아요. 농성장을 ‘5성급 호텔’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랄라잖아요. 랄라 덕분에 농성장 활동에는 항상 위트가 넘쳤어요. 덕분에 사람들이 농성장에 편안하게 찾아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분위기의 농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농성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영은 말처럼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돕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준 덕분에 1000일 넘게 농성을 이 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볼까요? 다산 30주년의 모토가 ‘30년 전통의 인권맛집’이에요. 오랜 시간 변함없는 맛을 내는 식당처럼 저희도 30년간 인권을 지으려 인권맛집으로 활동해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다산, 다산의 활동하면 떠오르는 맛이나 특정 요리가 있을까요?

시녀 제 생각에 다산은 김치 같아요. 제가 가끔 혜경이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다산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딸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인권적인 방식으로 대해야지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영은이 아직 어린 은유(영은 활동가의 딸)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모습도 생각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다산은 모든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김치라고 생각해요. 김치는 안 먹어도 있어야 되고, 먹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혜경 난 다산이 활동하는 거 보면 되게 존득존득하고 차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존득존득한 느낌의 여자들이 모여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종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다르네요. 저는 매운맛을 생각했거든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모토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본이나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그런 화끈한 매운 맛 같아요. 음식을 꼭자면 만두가 떠올라요. 농성장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만두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때 사람들과 ‘이제는 승리할 만두’, ‘이재용 처벌할 만두’ ‘박근혜 구속할 만두’ 이런 재밌는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그 때가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산하면 만두가 떠올라요.

영은 저는 마카롱을 떠올렸어요. 예전에 농성장에서 밥을 먹을 때 보통 먹기 쉬운 국밥이나 배달 음식 같은 걸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를 대접하는 느낌을 나게 하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활동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 스스로를 달달해가면서 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가 스스로를 대접하면서 활동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었던거죠. 전 그게 다산의 랄라가 반올림의 활동에 불어넣어 준 방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음식으로 나타낸다면 마카롱이 아닐까 싶었구요. 마카롱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스스로를 대접하면서 활동하자’는 말은 저한테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8년 농성이 끝난 후에는 다산과 반올림의 활동이 만나는 지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반

올림이 다산과 함께 힘을 합쳐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종란 2018년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맺은 중재 협약에 따라 미래전문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신설되었고 올해 말 수원역 근처에 들어설 거라고 해요. 전자산업 노동자 및 산재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할 계획이었는데 반올림도 이 기관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지역 사회의 단체들의 감시도 필요하잖아요. 다산이 수원에 위치한 만큼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올림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알권리 문제예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공개되지 않도록 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이 많은 산업에서는 퇴직 노동자가 산재 증명을 위해서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 제대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올 해 초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만들었는데, 전략산업에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더욱 늘렸죠. 지난 몇 년간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된 산업기술을 생명, 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얻은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어있죠.

영은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 현재로는 잘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일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잖아요. 다산이 이 문제를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풀어주거나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어요.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인정이라는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고, 수많은 산재 피해자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냈으며, 1023일 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흔치 않은 '해피엔딩'을 이끌어 낸 반올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의지, 다재다능한 활동가들, 오랜 시간 그들의 곁은 지켜 준 연대자들의 면면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력을 가진 반올림이라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들도 꼭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올림의 어렵지만 의미 있는 도전에 응원 과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자아자, 반올림 힘내라!! 🏠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진행된 '이어말하기'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할라 활동가



반올림 창립 10주년을 맞아 직업병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수원삼성전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30년전통 인권맛집, 오늘도 인권을 짓다’를 다산인권센터 30주년 슬로건으로 결정했던 것은 한 곳에서 터를 잡고 오랜 시간 끈기 있게 달려 온 다산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있다. TV에 나오는 전통의 맛집 이미지를 상상해보시라. 낡았지만 빛바래지 않고, 집념과 끈기로 만들어 온 자부심의 시간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깊고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산의 활동이 딱 그 맛이다.

1992년 다산합동법률사무소의 인권상담소로 시작한 다산은 국가보안법 위반 시국사건, 지역 사업장 노동자 해고 투쟁, 철거민 투쟁 등 다양한 지역의 이슈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지역활동은 다산인권센터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약방의 감초처럼 수원의 지역운동에는 다산이 함께했다. 수원반전평화연대, 수원촛불,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등 각종 연대활동에 결합하고, 지역운동포럼 in 수원처럼 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운동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진행했다. 수원 공공미술관 명칭 반대, 수원우수토구 물고기폐사 사건, 광고 상 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싸움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입해 왔다. 그 중 다산이 주요한 역할을 한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광장을 열다_ 수원촛불에서부터 기후위기 광장까지

2008년 5월 이른바 ‘광우병 촛불’이 시작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날마다 집회와 가두행진이 열리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뿐 아니라 교육, 4대강, 의료 민영화 등 사회적 현안으로 이슈는 확대되었다.

그즈음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긴 시간 이어질 수원 촛불의 시작이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역 롯데리아 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촛불집회의 주제는 매주 달라졌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투쟁, 국정교과서, 세월호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연, 길거리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촛불을 지속적으로 들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광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불쑥 찾아오기도 떠나가기도 했지만 광장에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광장에서 모인 힘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곳곳하게 버텨낼 수 있었다. 촛불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사람, 짐을 나르고 문화제를 기획하는 사람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수원촛불이 늘 신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집회에 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힘들어 하기도 했고,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물음이 짐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매주 광장에서 만날 누군가의 얼굴을 기다리는 것, 함께 울고 웃으며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2008년 시작된 수원 촛불은 매주 수요일, 격주 수요일, 한 달에 한번 시간을 바꿔가며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까지 이어졌다.

함께하는 시공간이 준 힘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광장에 섰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모두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때문이었다. 폭염과 폭우를 반복하는 날씨로 인해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잃는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들, 몇 개월간 지속되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과 같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장면들은 이미 우리 앞의 현실이 되어 있

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힘을 시민과 광장에서 찾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광장에서 섰다. 2022년 시작된 ‘기후위기, 광장을 열어라’는 격주 수요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길거리 강연, 시민 발언대, 피켓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산은 광장을 통해 동료 시민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힘을 만들어 왔다. 그 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판을 펼친다. 우리가 판을 펼치는 곳, 그 광장의 아우성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믿는다.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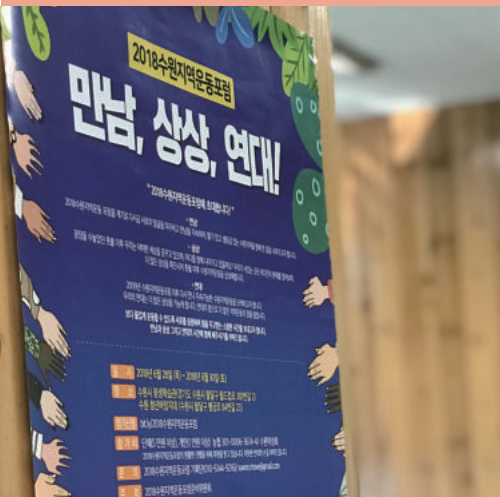
2008년 수원촛불을 통해 만난 힘은 지역운동의 전망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운동포럼으로 이어졌다. 지역운동포럼은 광장에서 만났던 의제, 사람, 고민을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모아 내보자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답이 아니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도전이었다. 지역 사람들이 모여 운동 의제를 나누고 토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지역운동포럼은 2009년 <새로운 만남, 신나는 변화, 발칙한 상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촛불집회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고민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리고 여성, 노동 등 여러 영역의 의제를 지역사회라는 렌즈를 통해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0년은 <상상은 자유롭게, 연대는 리얼하게>라는 주제로 ‘연대’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 노동운동, 재생산권, 지방자치 활성화와 시민참여, 지역의 대표 기업인 삼성에 대한 기업 감시 등의 의제를 다뤘다. 2011년 지역운동포럼 <안녕?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로 수렴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구성하는 민주주의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

이후 몇 년간 이어 저온 지역운동포럼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2015년 재개되었다. 당시 주요 지역 사안인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문제, 복수원 민자도로 건설, 삼성우수토구 물고기폐사사건, 이주민범죄예방 대책 등 수원시의 정책에 대한 상황공유와 시정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과 지역운동의 과제를 주요하게 논의했다. 지역운동포럼이란 이름으로 지역의 새로운 의제를 찾고 시민사회 운동의 방향을 찾기 위한 지역운동단체들의 고민을 이어간 것이다.

2018년에는 새로운 지역운동주체들의 등장과 함께 <만남, 상상, 연대>라는 주제로 지역운동포럼이 열렸다. 멈춰졌던 만남을 다시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지역운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2018년 포럼은 지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활동가들이 기획·진행을 담당하였다. 포럼에서 만났던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고 이후<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는 지역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되어야 할 원칙과 평등한 지역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지역운동 의제 뿐만 아니라 운동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까



2015년 이후 3년만에 재개된 2018수원지역운동포럼 현장

지 지역운동포럼의 문제의식이 다변화된 것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지역운동포럼은 지역 활동가들이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 지역운동포럼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자 연대의 방향, 지속 가능한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도전이었다. 2018년 이후 그 도전은 잠시 멈춰졌지만 우리는 지역운동포럼이 던져 준 연결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비슷한 질문에 또 다시 봉착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아마도 지역운동포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2018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시작으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악하려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감지되었고, 2019년 경기도에서도 성평등 조례를 개악하려는 혐오선동세력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 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다산인권센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어 혐오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했다.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 향의 행동 등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지방선거를 촉구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도민행동 활동가들



조례 개악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결국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힘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조례개정안 통과 이후 도민행동은 경기지역의 시군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가 공격받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갈수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요구에 발맞춰 경기지역에서 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펼쳐졌다. 도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평등이 시대정신이라는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전국을 순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 평등버스에서부터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국민동의 청원 활동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평등길 도보 행진, 2022년 국회 앞 단식농성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전국적 활동에 도민행동도 연대의 마음을 담아 동참했다.

특히, 2022년 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2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도민행동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무실 점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회 공청회 개최를 압박했다. 사무실을 점거했던 10일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의 장애인·노동·종교·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사회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10일간의 점거 농성은 국회 공청회 개최와 함께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또 다시 나중으로 미뤄졌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정에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혐오정치에 가로막혀 국회에 멈춰있다.

인권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세상이 되었다. 우리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인권은 당연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타인과 나



수원역에서 진행된 수원촛불 현장



2019년 9월, 경기도 의회 앞에서 진행된 혐오와차별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기자회견

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는 소수의 이해 관계와 혐오 정치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지워지는 듯하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이다.

‘경기지역 인권단체’라는 타이틀은 다산인권센터 운동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좀 더 잘 확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권의 이야기를 건넬 것인가. 지역의 인권운동단체로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다산 앞에 놓인 질문은 다산의 향후 30년 활동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과 촉각을 다투는 인권의 현안 앞에 지역운동에 대한 다산 내부의 논의가 한동안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천천히, 느리지만 쉽 없이! 지역운동에 대한 다산의 고민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의 생명파괴, 무엇이 위험한지 알 권리가 있다.

이오이(환경정의 전문위원)

원천리천 물고기들의 떼죽음

2014년 10월 31일, 이른 아침 한 시민이 환경단체에 제보 전화를 해왔다. 수원의 원천리천에 물고기가 떼로 죽어 있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큰 비가 내리면 수원의 하천 일부 구간에서 오수가 역류해 일부 종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종을 구분하지 않고 떼죽음을 당한 사례는 흔치 않았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도시하천에서 흔히 발견되는 피라미나 말조개는 물론이고 동자개, 꺾지, 매패 등 다양한 물고기가 1만~3만 마리 가량 폐사한 것이다.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 떼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표류수를 채취해 민간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소로부터 받은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과 같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었다. 사고 당시 수원시 역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수질오염공정항목 6가지와 잔류염소만 분석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으로도 불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다산인권센터도 대책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책위 구성원들은 삼성전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 사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해명은 사업장 내 중수도 처리 시설 확장공사 기간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를 임시 저장해 둔 우수토구의 자동개폐기가 빗물에 열려 독성 폐수 30여 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비공식적 해명이었다.

떼죽음의 원인을 찾아

당시 사고가 발생한 원천리천 좌측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었기에 사건 초기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표류수 성분분석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활동가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들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원에서 활동하는 시민, 환경,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와 비슷한 사건·사고가 인근 주민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의 눈치를 보는 수원시

삼성전자는 중수도처리시설 공사를 담당하 하청 업체의 과실이 있었고 자신들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의 이런 주장에 호응하듯 수원시 역시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 형사 고발했다. 집단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물고기 사체를 수거해 분석·의뢰하겠다는 수원시 행정 담당자는 죽은 물고기를 그냥 폐기해 버렸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대책위는 삼성전자와 수원시 사이에 모종의 째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무책임한 삼성전자, 책임을 방기한 수원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수원시 행정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단(이하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 수질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 환경단체 활동가, 화학사고 관련 전문가 등이 대책위에 참여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대책단의 활동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대책단의 요구를 삼성전자가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책단에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대책단은 결국 활동 방향을 전환해야 했고, 사고 당시 시민사회의 조사와 기록, 문헌 조사 등을 근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를 만들다

재발 방지 활동의 방점은 단순히 하천 생태계 파괴 문제를 넘어 좀 더 넓은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기업의 화학사고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관대책단은 이러한 화학사고에 대비해 지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인 발생 차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과 ‘경기도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수원시의회, 수원시 그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당사자였던 삼성전자도 합류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위해 행정,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훑아보았다.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는 것,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역사회가 알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형태로 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제도와 정책시행 방법마련을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바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이다.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한지 1년 6개월만인 2016년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였다.



그동안 기업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기업의 은폐, 축소 시도로 인해 사고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주변 기업의 어떤 물질로 인해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정보의 불평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의

불평등을 불러왔다. 이러한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라는 영역에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좀 더 제대로 보장되기를, 다시는 자본의 욕심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본다.

다산이 보여준 연대의 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수로 2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이 이어졌다. 시민, 환경, 인권단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경험을 축적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긴 활동의 역사를 가진 다산인권센터는 기업의 화학사고 노출에 대한 활동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직접 구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권리, 요구해도 축소되는 권리에 다산인권센터는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었다.

시민사회 활동이 열악한 지역에서 연대의 힘은 배가된다. 다산이 주로 다뤄왔던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 활동에 함께 해준 다산에게서 그 연대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만들어 더 큰 나무로 커가는 다산인권센터의 내일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으로 촉발된 이 사례가 전국의 '화학사고 대응 및 알권리조례' 및 제도 정비에 마중물이 되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



2015년 1월,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에 대한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처럼,

시민참여와

조직화 활동

다산인권센터는 활동 초기부터 인권이라는 화두를 지역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주로는 전국적인 인권 사안에 대응하거나 지역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 지방정부 혹은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인권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활동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왔다. 그렇기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 다산에서 시민참여 활동은 주요 메뉴는 아니지만 어떤 한식 상차림에도 빠지지 않는 김치와 같은 활동이었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수원인권영화제이다. 1996년 시작해 11년간 진행된 영화제를 통해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인권관련 영화를 선정·상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시민들을 만나는 또 다른 대표적 활동은 인권교육이었다. 2000년대 후반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민들을 만날 기회도 많아졌지만 다른 활동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다산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전과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다 2013년 인권교육을 주 활동으로 하는 ‘인권교육 온다’가 다산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다산은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 활동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후 다산이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은 특정 인권 이슈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는 인권공부방/인권학교, 공부 모임, 매달 인권 주제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이



영화 '런던 프라이드'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

슈 수다회, 간헐적으로 진행된 영화 상영회가 주를 이루었다. 인권공부방은 주로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거나 화제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강좌를 구성하고, 강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권에서부터 문학으로 읽는 인권,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극에 달았던 시절에는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묻는 강좌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인권공부방에서 다뤄졌다. 2010년대 후반에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공정, 혐오 등의 주제가, 2020년대 초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뤄졌다.



공부모임은 인권강좌 이후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를 공부하는 모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나 관련 영화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최근 모임으로는 경기·수원 활동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인권학교 ‘인권이 내게로 왔다’(2019) 후 참여자들이 모여 매달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던 ‘문득, 인권’ 모임, 지역에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차별 자원 활동가 모임’ 등이 있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다산은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얻을 수 있었고, 시민들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의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활동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영화 상영회 또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였다. 국가보안법, 세월호, 밀양송전탑 싸움, 용산 참사,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싸움, 퀴어,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여성. 정말 다양한 의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지역에서 상영하였다. 단순히 영화만 트는 것이 아니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하여 영화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라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건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참여자들이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단점 또한 분명했다. 최근에는 인권영화를



접할 수 있는 매체나 방식도 많아지고, 매년 다양한 인권영화제들이 열림에 따라 일회성 상영회는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점점 더 그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하되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권강좌 역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는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여 인권 강의를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거기다 다른 시민단체들에서 기획·진행하는 강좌까지 포함하면 바이흐로 강좌 범람의 시대인 것이다. 시민들로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이제 다산과 같은 소규모 단체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점점 더 버겁고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기대하는 결과를 내기 힘든 일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들과 만나고 접점을 만드

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마치 한 식 차림에서 김치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다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십분 발휘한, 다산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챙기는 것. 시민들을 만나고 이들을 조직하는 데에는 많은 공력이 들어간다. 다산의 전체 활동에서 시민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중요도에 맞는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민참여와 조직화 활동이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활동가들의 생각과 고민을 모아야 할 때다. 🏠

다산은 톡! 쏘는 와사비야



“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던히 화를 내며 콧김을 내뿜고 있는 다산은 와사비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콧 집어 와사비처럼 톡 쏘아 주는 다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누군가의 부당함을 목격하는 것, 분노하는 것, 바꾸기 위해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 어느 하나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다산은 늘 씩씩하고 유쾌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와사비처럼 톡톡 쏘아서 눈도 코도 마음도 땡 뚫어 주는 다산이 되기를!

”

출판계 미녀작가. 박선희 벳바리님

30년 전통 인권맛집 리뷰



다산은 우리를 두드리는 맛

“

다산을, 다산에서의 시간들을 어떤 맛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찌 감히 한 가지 맛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무렵 문득 제철 과일이나, 제철 나물과 같이 사계절이 오롯이 담긴 맛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산은 제철 음식들처럼 모진 시련들을 모두 뚫고 사계절이 계속되듯 우리의 곁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우릴 두드립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노라고, 누군가의 권리가 있노라고. 그리고 당신 곁엔 다산이 있노라고.

때론 우리가 제철 음식을 찾듯 다산을 두드리기도 하듯이 말이죠.

”

영화학도, 김별 벵바리님

단짠 단짠



유쾌하고 발랄한 방식으로 풀어낸,
그래서 오래 기억되는 활동들

국정원에 날린 메일과 맞
동권력 남용에 앞장서는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64



국정원 사무실로 나들이를 가다

2015년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속속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킹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국제기구에 반인권 정부로 지목된 정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말과는 달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활동가 등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정원도 ‘해킹팀’의 고객이었는데, 국정원의 위장용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육군 5163부대’를 고객명으로 썼다고 한다. 이 이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 때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강을 넘었던 걸 ‘기념’해서 붙인 것이라 하니 그 이름에서부터 구린 냄새가 폴폴 나는 듯 했다.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영수증이 확인되자 국정원은 ‘국외용·대북용’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원이 ‘카톡 검열’ 기능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 인사를 사찰하려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꼭 그런 꼴이지 않은가. 수많은 시민들이 과거의 악행을 되풀이하는 국정원에 분노하였고, 이번엔야 말로 국정원의 만행이 명명백백

하게 밝혀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침묵과 부인의 벽은 강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건에 밀려 국정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사그라지는 것이 염려된 다산 활동가들은 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수원에서 뭔가를 해보기로 했다.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걱정스런 마음을 전달하는, 이름 하여 ‘여기 국정원이 있다’-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점심.

첫 번째 과제는 국정원 수원 사무실의 위치 찾기. 당연하게도 인터넷 검색으로는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 수원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더니, 인터넷에 주소만 안 나오면 뭐하나!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드러내 왔는데 말이다.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우리는 국정원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나들이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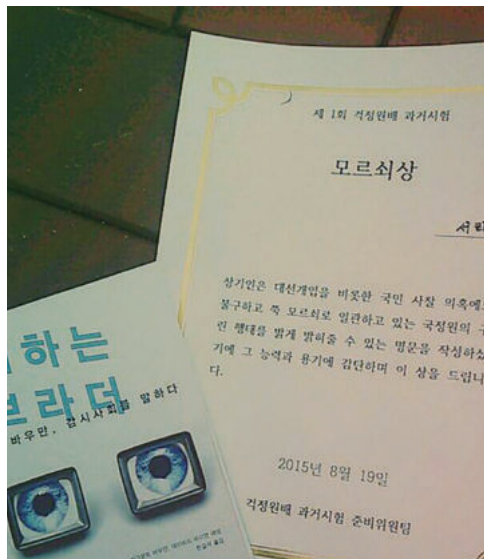
걱정의 마음을 담은 활동들

드디어 나들이 당일. 8월 한낮의 햇볕은 너무나도 뜨거웠다. 하지만 한여름의 더위도 국정원을 걱정하며 모인 수원시민들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장 먼저, 준비물로 공지했던 우산을 펼치고 각자 국정원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자외선도 피하고 우리의 마음도 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랄까. 나들이의 첫 순서는 다산의 랄라가 진행한 국정원 방석퀴즈.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져 국정원에 대한 퀴즈를 푸는데, 정답을 외치려면 깔고 앉아 있던 방석을 들어 올리며 ‘정답’이라고 외쳐야 했다. 정답을 알았음에도 상대방보다 방석을 들어 올리는 속도가 늦어 답을 맞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참가자 모두 즐겁게 퀴즈에 참여하였다. 이 방석퀴즈는 당시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국정원의 행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까지 쏙쏙 뽑아 출제하여 참가자들의 시사 상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고픈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다음 코너는 국정원의 냉장고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지 탈탈 털어보는 ‘국정원의 냉장고를 부탁해!’ 이탈리아에서 ‘사찰음식’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진 랄라 셰프와 육아 휴직으로 한동안 필드를 떠나 있다 복귀를 준비하는 인권교육 온다의 그린(당시 메달) 활동가의 환상적인 티키타카가 돋보이는 코너였다. 랄라 셰프는 국정원 냉장고에 있을 것 같은 재료들을 소개했는데, ‘음지’에서 자랐지만 ‘양지’를 지향하는 숙주나물, 5월 16일 새벽 3시에 산란한 달걀, 이탈리아에서 나나테크를 통해 직수입한 애호박, 그리고 그냥 ‘빨간’ 당근까지. 그리고 이 모든 재료에 초를 치는 초고추장까지 합쳐져 맛난 ‘사찰음식’ 비빔밥이 완성되었고, 참가자 모두가 비빔밥을 맛있게 나눠먹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들이의 마지막 코너,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다. 과거시험은 크게 운문과 산문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운문영역의 과제는 ‘국정원’으로 3행시 혹은 ‘민간사찰’로 4행시 짓기 그리고 산문 영역은 ‘걱정원을 걱정하다’라는 주제로 글을 짓는 것이었다. 대안 미디어 ‘너머’의 양훈도 선생님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3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사찰대상은 수원여성회의 조영숙 님에게, 걱정원장상은 랄라, 모르쇠상은 서태성님에게 돌아갔다. 모든 작품이 주옥같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찰대상을 탄 작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민: 민간인 사찰이 웬말이냐!
 간: 간첩 잡는다더니
 사: 사람다운 사람만 잡는구나.
 찰: 찰박찰박 드러밧고 싶구나.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을 끝으로 국정원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유쾌한 나들이는 마무리되었다. 나들이를 준비했던 사람도,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무거웠던 사안에 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날의 나들이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기억될 것 같다.

한 번의 걱정으로 부족하다면...

그 때 나들이를 마무리하면서 국정원이 계속 못된 짓을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나들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우리의 걱정이 충분치 않았는지 다음 해인 2016년에는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시기를 틈타 탈북 사건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또한 엉뚱한 대북 정보로 국제적 망신을 타는 등 국정원의 헛발질은 계속 되었다.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해 5월에도 ‘여기 국정원이 있다’ 2탄으로 국정원 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대신 다산 활동가가 지역에서 용하다는 점집에서 받아온 국정원의 사주를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태생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정원의 행태가 몇 번의 행사와 기자회견으로 한 번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며 관심을 멀리하는 순간, ‘안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시민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했던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다른 일이 많아도 국정원과 같은 국가 권력 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곳이 어디이든, 설령 지도에 나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꼭 전할 것이다. 🏠



‘수원의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2016 총선 대응활동

글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6년 초로 돌아가 보자. 당시는 악법 중의 악법인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민심을 읽지 못 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회와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거대 양당의 박빙 혹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몇몇 노련한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당시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친구

그런 와중에 수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총선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뜻이 맞는 몇몇 활동가가 모였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수원 시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열렬히 외치던 이들 중 세상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각종 개혁입법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엑스맨 김진표 후보, 혐오·차별 선동은 기본에 막말이라는 재주까지 탑재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던 당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바로 그 친구들이었다. 활동가들은 이들의 행적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아니던가! 거기에 맞게 우리도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들을 알리기로 했다.

세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작당모의를 했다. 합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타겟팅을 명확히 해 반드시 낙선시켜야 하는 이들을 정하자.
2.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하자.

첫 번째 미션은 아주 쉬웠다. 김진표 후보와 김용남 후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던 김진표 후보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숭상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온 몸으로 막고 있었고, 민주당의 개혁입법에 번번이 반기를 들었다. 김용남 후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트집 잡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이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병상에 누워 있던 백남기 농민을 모욕하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료의원에게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말하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 둘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단점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김진표와 김용남은 정치인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이들이었기에 큰 망설임 없이 우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정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자

어려운 건 두 번째 과정이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기획이 될까! 사실 논의는 즐겁게 했지만 ‘선거’도, ‘막말’도, ‘낙선’도 재미있게 엮기에 어려운 키워드였다. 여러 의견을 나눈 후 시민들의 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소개’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이들의 막돼먹은 행동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소개한다는 의미의 “막친소 in 수원”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결정했다.

우리는 막친소들의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상황극으로 만들어 영상으로 찍고, 윗놀이를 하면서 던진 윗이 선에 걸쳐 “낙”에 빠졌다는 컨셉의 영상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이들의 막돼먹은 행동이 담긴 영상도 찾아 시민들과 공유했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의 수는 제한적이기에 대부분의 활동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뤄졌다. 우리의 활동에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반응했다.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 수도 다른 활동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을 통틀어 가장 생생한 시민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에 대해 시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가 선거기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하기보다 억누르는데 여념이 없는데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 축제로 여겨질 리 만무했다.

선거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막친소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낙선운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거기간 시민들의 언로를 확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선거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격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많은 네거티브 전략들이 선거공간을 더럽힌다. 과열되는 네거티브를 방지하고자 하는 선거법은 오히려 선거기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 후보자들의 언행과 정책들은 선거법 아래 선거 당사자들만 다룰 수 있다. 막친소 프로젝트는 선거법이 그어놓은 성역에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는 지역적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20대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특히 수원은 새누리당에 의석을 한 석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은 당선됐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의 견제로 2019년 국무총리 지명이 철회됐다. 김용남 씨는 최근 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로 나왔지만 석패했다. 그는 20대 총선 패배 이후 이미지 변신을 위해 각종 매스컴에 패널로 나가 활약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그를 도마에 올린 건 그의 막말이었다. 나는 막친소 프로젝트가 던져놓은 돌이 두 정치인의 정치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자평한다. 이제 선거기간 시민들의 알권리와 말할 권리를 넓히고자 던진 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지문과 지방정부의
파렴치에 보여준 솜씨

‘공공성을 지켜라!’

수원시립미술관
명칭변경운동



2015년 초, 다산인권센터가 위치한 수원화성행궁 광장 옆에는 시립 미술관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어느 현장과 다를 것 없는 그 곳에 눈에 띄는 풍경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현장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매일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명칭에 반대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시립 미술관 이름에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었다.

기부를 할 테니 이름을 내놓아라

이들은 왜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면 일인시위를 이어갔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2009년 수원시 권선구에 7000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시티’ 단지를 지어 분양하였고,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수원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2012년 7월 현산은 화성행궁 인근에 300억 규모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수원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문제는 기부를 하는 대신 건물명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는 조건을 단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원시는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지역 주민과 미술인이 주축이 되어 2014년부터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초반에는 언론 기고를 통해 수원시와 현산이 ‘기부채납’을 이유로 공공 미술관 명칭을 ‘거래’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알렸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활동에 결합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자 운동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해 12월에는 미술관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립 미술관의 명칭은 시민이 직접 짓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미술관 이름 공모전을 열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현산과 이미 약속을 했고, ‘약속은 약속’이라며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먼저 나가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쉬이 지치지 않도록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미! 중요한 사안이지만 운동은 너무 심각하지 않게, 함께 이 운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에서부터 미술관과 연관된 활동인 만큼 예술을 접목된 활동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먼저 우리의 이름이 필요했다. 2015년 3월, 그렇게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가 탄생했다.

수미네의 기발하고, 유쾌한 활동들

초반 수미네 활동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에 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수원시 정보공개 심의회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시의회에 릴레이 반대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아파트 브랜드를 공공미술관의 명칭에 버젓이 사용하는 몰지각하고 비문화적인 수원시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아이파크 미술관’ 도시락 싸들고 말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미술관 공사 현장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된 조례가 수원시의회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5월 21일을 5일 앞두고 조례 통과를 반대하며 미술관 공사 현장 앞에서 100시간동안 무작정 놀기로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누가 와줄지도 미지수였지만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으로 우선 텐트부터 쳤다.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치고 거기에 ‘시민카페’라고 써 부치니 제법 그럴듯한 느낌이 났다.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참여자 중에 요가를 하는 분이 계셔서 즉석 요가강좌가 열렸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미술관 명칭 반대를 위해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와 길거리 특강도 열었다. 피켓 들고 홀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광장에서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진 것은 그 때가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무(모)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도 아니었다. 6월에는 시립미술관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1600판다+의 세계 여행> 프로젝트에 맞춰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음이의어인 ‘판다’(panda와 sell)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얼굴에 판다 분장을 하고,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라고 적어 등에 붙인 채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로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현산이 위치한 용산역 앞에서 현산의 파렴치함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수미네 활동가들이 배트맨, 스파이더맨, 캣우먼 복장을 하고 ‘공공성을 구하라!’는 이름으로



시청에 미술관 명칭 관련 민원을 넣고,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술관 개관을 앞둔 10월에는 수미네 주최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개관식도 열었다.

공공성의 문제이기에 이름은 중요하다

수미네 활동가들의 노력과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술관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간판을 달게 되었다. 결과로만 보면 우리의 운동은 실패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재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서 운동을 만들어갔던 즐거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

혹자는 우리의 활동을 보며 그깟 미술관 명칭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300억씩이나 투자해서 미술관을 만들어 주는데

아파트 홍보하는 것 정보는 봐줄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부족한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꿈도 못 꾸는 공공미술관을 기업이 지어준다는데 고맙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나 수미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었다. 언젠가부터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각종 공공건물, 시설, 나아가 사회 및 문화 서비스가 기업, 특히 재벌들의 투자유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수미네의 활동은 단순히 미술관 명칭에 대한 싸움을 넘어 자본에 맞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시립미술관의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수원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시민의 뜻보다는 기업의 눈치만 살피며 치적을 쌓는 것에 몰두한 수원시장의 정치적 무능에 대한 비판이었다. 기업 브랜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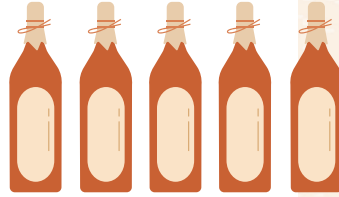


경연장이 되어 버린 공공의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시민들에게 울리는 경종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미술관 ‘이름’을 바꾸기 위한 싸움을 1년 9개월이나 이어간 것이었다.

“아이파크 미술관 이름은 결국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이나 20년 뒤에라도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하는 반대운동은 결국 수원시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운동은 의미가 있다.” 수미네 운동이 한창일 당시 한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마치 예언처럼 2022년 9월 미술관 명칭에서 ‘아이파크’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수원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미술관의 명칭은 ‘수원시립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례 개정의

발단은 2022년 초 광주광역시에서 잇달아 발생한 현산 아파트 건설현장의 대형붕괴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개관 당시부터 ‘아이파크’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미술계,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어왔고 현재의 이름이 공립 미술관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고 했더니 수년 전 수미네의 무(모)해 보이던 활동이 결국 ‘명칭변경’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본의 막강한 힘 앞에 공공성이 점점 그 힘과 가치를 잃어가는 요즘, 이 소식이 공공성을 위한 또 다른 투쟁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들기름 다섯 병에 들어 있는 마음



“

다산인권센터의 활동 소식을 들을 때마다 멀리 계신 노모가 보낸 음식 꾸러미를 받아 안는 기분이 든다. 그 꾸러미에는 들기름 다섯 병이 들어 있을 때도 있고, 때론 아삭한 오이지가, 마늘종 짬아지가, 마당 나무에서 거뒀던 대추와 호두알이 있다. 다산 포 음식 꾸러미가 세상에 보내진지 어느덧 30년이라고 한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시간이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그 다정한 마음과 수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

‘어떤 호소의 말들’ 작가, 최은숙 벵바리님

30년 전통 인권맛집 리뷰



막걸리가 떠오르는 다산

“

다산인권센터를 생각하면 막걸리가 떠오릅니다. 막걸리 한 잔이 일상에 지친 노동자와 서민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처럼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이 고픈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을 잘 보면 그냥 평범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마치 막걸리처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보약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약과 같은 다산인권센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에서 만난다면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인권마라토너, 허선 벵바리님

달콤새콤



일상의 **달콤**한 휴식,
어쩌다 **새콤**한 별식



보글보글, 달그락달그락 우리의 밥상

‘밥 먹고 하자!’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올려 퍼지는 소리가 있다. 도마 위를 열심히 달리는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뭔가 끓고 있는 소리, 찬장에서 그릇을 꺼낼 때 나는 달그락 소리. 이 소리들이 들릴 때쯤이면 내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주방 쪽으로 날아가 있다.

‘오늘은 누가 밥 당번이지? 점심 메뉴는 뭐지?’

물을 마시는 척 문을 열고 나가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다산 활동가들을 볼 수 있다. 요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날의 메뉴를 예상해 보는 것도 다산 점심 시간의 매력 중 하나이다. 물론 미리 점심 메뉴를 알려주는 날도 있다. 그런 날에는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곧 상 위에 오를 그 날의 요리와 그 맛을 상상하는 재미가 꽤나 쏠쏠하다.

“식사합시다!”

밥 먹자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일제히 사무실을 나와 일사분란하게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책상 위치를 바꿔 식탁을 만들고 상을 닦고 수저를 두고 밥과 반찬을 나른다. 누가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준비는 착착 이뤄진다. 모두가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다산의 점심 식사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에 둘러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먹는 밥맛은 웬만한 맛집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 분위기는 웬만한 핫플레이스 못지않게 신난다.



“식사 준비하는 거 귀찮거나 힘들지 않아요?”

다산에서 처음 밥을 먹는 손님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지어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어도 곳곳이 점심을 해서 먹는 다산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만하다. 다산인권센터가 위치한 행궁동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많을뿐더러 나가서 먹으면 편할텐데 굳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은 그저 한 끼를 때우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모두 “괜찮다”고 얘기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요리를 하는 것을 즐기는 활동가가 있는 반면 부담스러워 하는 활동가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밥을 준비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각자 다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쉼의 시간이자 힐링의 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뇌와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의미는 바로 함께 점심 시간이 ‘소통의 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모두들 점심 준비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다산에서 점심을 만들고 함께 먹는 시간은 활동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다산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인 것이다.





밥을 준비 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무실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아침 일찍 집에서부터 음식을 준비해 오는 랄라, 항상 자신 없다고 말하지만 매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썸, 다른 활동가가 좋아하는 메뉴를 할 때 행복하다는 썸통, 요리를 못한다지만 자신의 당번이 돌아올 때마다 사무실 냉장고를 책임지고 털어내는 아샤. 다산 활동가들의 요리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다산에서 점심을 함께 한다면 이 글에서 담지 못한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전통 인권맛집 다산인권센터의 점심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다. 점심시간 행궁동 '맛집'을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30년전통 인권맛집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라! 📍



다산의 산책길

햇빛과 바람에 마음을 말리는 시간

"산책 나가실 분~"

점심식사가 끝나면 사무실에
공식질문이 울려 퍼진다. 부른
배를 꺼트리고 오후 일과 시작 전
기분 전환을 위한 산책은 소소하지
만 중요한 매일의 이벤트이다. 이 이
벤트를 즐기기 위해 누군가는 선글라스
와 모자를 챙기고 다른 누군가는 선크림
을 바르며 각자의 준비를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산과 온다*활동가들의 산책이 시작
 된다.



* 다산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인권교육 단체

산책길은 매번 달라진다. 날이 정말 좋고 다들
컨디션이 좋으면 사무실 뒤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걷고 싶으면
요즘 수원의 최고 '핫플레이스'인 행리단길을 걸을 때도
있다. 이중 가장 애용하는 코스는 행리단길을 걷고 팔달산
중턱의 산책길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루트이다. 이 코스를
활동가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적당한 높이의 언덕을
오르면서 느껴지는 운동 효과? 언덕이 끝날 때쯤 펼쳐지는
팔달산의 그늘이 주는 시원함? 둘 다 맞는 이유지만 내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코스 중에 시립도서관과 특정 카페를 지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책을 좋아하는 다산과 온다 활동가들에게는 빌려야 할 책과 반납해야
할 책들이 항상 있다. 산책을 나가면 꼭 한 명은 도서관에 들러 책을 대출
하거나 반납한다. 산책도 하고 도서관 볼 일도 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코스이기에 이 산책길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도서관 후문에 위치
한 콜스 커피는 다산 활동가들에게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숍 중 하나로
뽑히는 곳이다. '산책의 주목적이 사실은 콜스 커피에 들리기 위한 것은 아니
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가들은 이 곳을 자주 찾는다. 산책마무리 즈음
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하면 즐겁게 오후 일정을 시작할 마음이 절로 생기는 듯하다.

다산, 온다 활동가들과 산책을 자주 하다 보니 가끔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점심 때 함께 산책했던 사람들, 산책길의 풍경, 그때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생각나곤 한다. 혼자 산책을 할 때 좋은 길을 발견하면 같이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걷고 싶고, 좋은 커피숍을 발견하면 다 같이 한 번 와 보고 싶어진다. 다산의 산책은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런 게 다산 산책의 매력이다.



다산의 산책이 주는 편안함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과 나가는 산책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해서 억지로 가는 힘든 시간일 수 있고, 걸으면서도 일 얘기를 해야 하는 업무의 연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런 산책을 제안 받았을 때 불편함이나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산의 산책에는 편안함이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다산에서 산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활동가들의 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산책을 하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나 얼마 전 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등과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 너무 졸린 날에는 걸으면서 잠을 깨고, 생각이 많은 날에는 조용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한다. 게다가 산책은 강제가 아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눈치 보지 않고 산책을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산책 잘 나가나요?"라고 묻는다면 아쉽지만 "아니요"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30주년 준비 등 업무가 바빠지다 보니 점심을 먹고 바로 일을 하느라 산책을 못 나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와서 산책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간의
여유라도 있다면 소수의 인원이
라도 산책을 나가려고 한다. 바빠서
못 나갈 뿐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나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산의
산책은 쉼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다산의 산책,
그리고 또 다른 길

다산의 점심시간은 활동가의 요리에서
시작해서 산책을 끝내고 다 같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났다 해서 모든 산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돌아온 사무실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바로 ‘인권의 길’
이다. 이 길은 일상의 산책길과는 다르다. 사무실에서 인
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때,
비록 진짜 길을 걷지는 않지만 활동가들은 인권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길에서 활동가들은 활동과 운동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느끼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며 인권의 길을 걸
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구호 아래 지난 30년간 걸어온 인권의 길.
변변한 그늘도 없고 대부분이 오르막길이라 쉬운 산책길은 아니었지만 혼
자가 아니었기에, 함께 걸어온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인권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도 다산은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
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고,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인권의 길에 나선다. 앞으로 그 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만두잔치에
초대합니다

온 동네가

들썩,

들썩





**다산인권센터의
연관 검색어 ‘만두잔치’**

어떤 단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특정 활동이나 행사 같은 것이 있다. 그 단체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활동으로, 일종의 연관 검색어 같은 거라고나 할까? 다산인권센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사로 만두잔치를 꼽는다. 다른 단체는 하지 않는 행사라는 점에서 특이하기도 하지만 매년 초 다산의 활동가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베타리, 지역 주민 그리고 활동가들과 나눠먹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긴 것이 아닐까 싶다.

다산인권센터는 매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2008년부터 매년 초 만두를 빚어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통 다른 단체들이 총회 준비로 자료를 만들고 회의를 하느라 정신없는 시기에 다산의 상임활동들과 자원 활동가들은 이번에는 어떤 만두를 만들어야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두잔치에 오게 할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다산은 왜 연초에 다른 단체들처럼 총회가 아닌 만두잔치를 열게 된 걸까? 다산이 회원의 참여 및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상근활동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총회라는 격식을 차린 행사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려면 한겨울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음식,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눠먹을 수 있는 만두가 좋을 것 같아 만두잔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만두잔치 초기부터 다산에 있었던 이에게 물어보니 실상은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사람들이 가져온 신김치가 많아 처치 곤란이었는데, 저 많은 김치를 어떡하면 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가 만두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 처음 만두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중요한 것은 다산이 만두잔치를 통해 벗어나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꾀했다는 점일 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초 만두잔치는 이어졌고, 만두잔치는 점점 다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만두잔치날 풍경

만두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다산 사무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만두피는 시장에서 산 기성품을 쓰지만 만두소는 직접 만드는 것이 전통이다 보니 만두잔치 날은 보통 전날 사다놓은 재료들을 씻고 썰고 찌는 풍경으로 시작된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기 대신 두부를 넣고 신김치와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소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함께 만두를 만들기 위해 온 사람들이 둘러 앉아 만두를 빚는 과정이 시작된다. 옆구리가 터질 것처럼 속이 꽉 찬 만두부터 크기가 큰 만두, 작은 만두, 기성품처럼 예쁜 모양의 만두, 어딘가 엉성한 모양의 만두까지. 만든 사람이 다양한 만큼 완성된 만두의 모양 또한 다양하다.



점심때가 되면 완성된 만두를 조리하여 다산을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대접하는데, 메뉴는 보통 찐만두와 만둣국을 준비한다. 이 와중에도 만두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기도 하지만 저녁 시간에 진행될 만두 만찬을 위해 필요한 만두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둣국 한 그릇 먹으로 오라는 초대에 왔다가 만두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아 함께 만두를 빚고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가끔 장난으로 만든, 속에 고추냉이가 들어간 만두를 먹은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만두잔치의 정점은 퇴근 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녁시간이다. 이 때는 점심 때 선보였던 메뉴에 더해 군만두, 비빔만두 등 좀 더 다양한 메뉴가 추가된다. 보통 이 시간에는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다산의 전년 활동사진을 정리해 만든 영상을 틀고 그 해의 활동 방향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다인데, 가끔 다산의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한 해 다산 활동가 모두 수고했다고, 올 한 해도 고생하라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신다. 묵묵히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덕담과 박수 소리를 들으면 한 해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다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뭔지 모를 든든함이 생겨난다.

이후에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펼쳐지는데, 그 당시 유행하는 게임을 할 때도 있고 빙고처럼 올 타임 클래식 게임을 할 때도 있다. 이 시간을 주로 담당했던 한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매년 만두잔치가 돌아올 때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만두잔치 참여자들의 수준에 맞는 게임을 찾기 위해 며칠간 고심한다고 한다. 승자에게 대단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상품이 걸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게임에 항상 진심이였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가면 갈수록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는 사람들 덕분에 만두잔치는 항상 박장대소로 마무리된다.

별식과 같은 만두잔치

만두잔치는 일상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지만 먹으면 힘이 나고 기운이 나는 일종의 별미 같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만두를 만들고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만두잔치를 진행해 왔다. 활동가들 일 덜어준다고 만두소를 만들어 보내주신 분, 집에 있는 도마와 칼을 챙겨와 아침부터 재료 손질을 도와주신 분, 함께 만두를 빚어주신 분.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만두잔치를 이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두잔치는 다산의 행사가 아니라 이 잔치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이들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잔치를 핑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한동안 소원했던 이들도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한 판 신나게 놓고 나면 다시 한해를 살아갈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만두잔치였다. 그런 만두잔치를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열지 못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3년 연속 만두잔치를 거르다보니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보며 뭔가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2월 어느 날 다시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만두 찌는 온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해본다. 🏠

30년 전통 인권맛집 리뷰

영혼의 만두 같은 다산



“

저에게 다산은 만두맛입니다. 만두는 겉으로는 투박하거나 둥글거나 때론 예쁘장하기도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채로운 재료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는 별미 중 별미죠. 이런 만두처럼 다산의 활동은 인권수호를 위해 다채로운 재료들과 어우러져 가장 맛있는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보육노동자, 이현림벵바리님

오늘도 김밥을 마는 다산



“

30년 전통 인권맛집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이 걸린 문제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몸을 던지고, 다양하고 치열한 활동 속에 캐내고 건져 올린 재료를 사용한다.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치지 않고 함께 수확한 식재료다. 인종, 성정체성, 장애, 나이, 외모 따위로 혐오하는 일 없이 모두가 안전한 세상, 평등하게 어깨동무하는 동그란 세상이 김밥 안에 어우러져 있다. 그런 다산인권센터의 김밥이기에 오늘 먹어도 내일 생각나는 맛일 수밖에 없다.

”

자유롭게 성장하고픈, 김우 벳바리님

30년 전통 인권맛집 리뷰



다산인권센터는 365일 열려있는 ‘맵단맵단’ 맛집

“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30년 동안 인권 한 우물을 파 온 ‘인권맛집’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단호한 매운맛에 사회적 소수자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단맛을 가진 그런 곳, 그래서 다산인권센터는 30년 숙성된 맵단맵단 맛집입니다. 인권의 원칙은 매운맛처럼 단호하되, 기분 좋게 해주는 단맛처럼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인권에 양보가 없다고 말하는 다산인권센터의 중요한 원칙과도 같습니다. 한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면서도 대대손손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맛집처럼 다산인권센터는 늘 인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인권맛집 단골손님, 정을 베티리님

함께 짓는, 모두의 밥상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그 길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기

다시,
인권운동을
묻다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 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을 방치한 모든 법 제도를
고발할 것이다. 절반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과 그 안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인권무의식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로 대응하는 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며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 <다산인권> 창간사 중 -

그로부터 30년.
우리사회 인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며,
다산은 어디에 서서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산인권센터 창립30주년 기념 토론회는
이런 고민을 담아 '다시, 인권운동을 묻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30주년 연구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와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발제]

다산인권센터 30주년 보고서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 활동의 특징

다산인권센터 활동은 크게 ①노동인권과 사회권 ②인권운동으로서의 연대 ③지역인권운동에 대한 고민 ④다양한 학습의 장과 새로운 주체 조직 이렇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노동인권은 다산의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2003년 삼성,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에 적극 개입, 2011년 다산 내부 노동인권 교육팀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정의하는 등 노동권과 인권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인권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시민성과 노동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등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 지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운동단체로서의 연대와 관련하여 다산의 활동은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이 연대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대사업이 증가될수록 다산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연대활동의 성과를 단체의 성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반대와 저항 외에 단체의 운동전략 즉 어떠한 사회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

지역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은 창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고민이자 정체성이기도 했다. 지역 정체성은 기본 변혁운동과 달리 변화의 힘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이고 이를 위해 사람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지만 초기 활동에서 그러한 장치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원촛불과 지역운동포럼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역운동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구성에 대한 고민과 지향을 담아

내고자 시도했다. 다만 지역인권운동의 틀과 전략에 대한 점검과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학습의 장과 새로운 주체조직 부분에서는 다양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에 인권의 화두를 던지고 인권 당사자들을 만나고 주체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 역시 다산의 지역인권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운동에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과 위상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세월호참사, 코로나19 등 전체 인권운동진영의 의제를 활동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다산을 인권운동의 촉진자, 연결자 그리고 조성자로 구분하고자 한다.

① 촉진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석기내란음모 사건 등 인권운동 내에서 중요한 의제나 화두를 던지는 역할.

② 연결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지역운동과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을 잇고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 담당. 수원촛불, 삼성 노동자 백혈병 문제, 수원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 등 수원, 경기지역의 다양한 의제와 단체를 연결하고 연대를 구축.

③ 조성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2000년대 이후 인권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권제도와 정책, 기구에 참여하고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자체인권조례 폐지대응,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등에 개입.

활동 전망에 대한 제안

다산의 활동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직운영, 활동의제, 위상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① 조직운영과 관련된 제안: 현재 활동가 중심의 수평적 조직 구조가 갖는 강점 유지. 강점이 조직운영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논의와 의사결정 체계 보완 필요. 회원들의 경우 다산의 정체성이 담긴 활동에 대한 요구와 바람 존재. 이를 활동 속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정과 참여구조 필요.

② 활동의제와 관련한 제안: 노동인권과 지역인권운동 개념에 대한 고민과 구체화 필요. 그리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내부사업계획과 업무 분담 등 자체사업으로의 기획과 활동역량 배분 필요. 연대활동의 경우 연대활동을 통해 다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구체화. 활동가 중심의 연대사업과 회원참여가 가능한 연대사업 구분.

③ 위상과 관련된 제안: 세대교체와 활동가 개인의 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내용 정리와 학습 중요. 활동의 영역이 특정인, 소수의 사람으로 대표될 수 있어 영향력을 고려한 행보와 소통 필요. 인권운동 내 외부에서 촉진자, 연결자로서의 역할 강조.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토론1] 지역과 인권운동 '지역', '인권' 단체의 고군분투와 과제

지역에 있는 단체의 경우 '지역'과 '인권단체'로서의 고민과 어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울산인권운동연대도 그동안 지역에서 인권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있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도 지역에 인권과 인권단체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현안에 함께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와 연대의 틀을 조금씩 구축해왔다. 이후 울산지역이 노동운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운동이 취약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나는 접점에 대한 고민으로 '기업과 인권'을 의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울산인권포럼'을 통해 지역시민사회와 인권의제를 소통하고 인권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단체로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인권단체'로서 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 자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활동가 중심'과 '회원 중심' 사이의 모호한 단체 정체성, 그에 부합하는 활동과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등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인권단체로서 자기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토대를 위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성연
수원지역 탈조직 범소속



[토론2] 시민과 인권운동 인권운동은 시민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난해 87년 민주항쟁 이후 수원의 시민운동 30년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산 활동가들과는 '인권영화제', '수원촛불', '지역인권포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위한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의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산은 시민들과 함께 인권의 현장을 추스르고, 지켰던 기억이 있으며, 다양한 시민강좌를 통해 시민과 시민을 만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였다. 한동안 광화문과 국회 앞에는 있지만 수원에서는 다산을 만날 수 없다고 아쉬워했던 지역의 한 시민이 최근 수원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정의, 광장을 열어라'를 통해 다산을 만나게 돼서 열렬히 반기고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의 바탕에 인권 의제가 자리하도록 하는 것,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소속과 분야를 넘어 교류하고 추동하는 것에 있어서 다산이 이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3] 노동과 인권운동

노동권의 문제를
인권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30주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산은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권을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를 바람에서 분리보다는 노동권의 확장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모든 권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노동권 역시 사업장 중심의 협소한 권리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의 권리와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산이 그동안 노동권과 만나는 방식은 주로 투쟁사업장에 결합하거나 다양한 대책위에 함께 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가 대책위에 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단지 취약한 노조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권리의 부재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또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 즉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알 권리'를 노동권의 일부로 명명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도 다산과 인권단체의 역할이었다.

인권단체가 노조를 만날 때 한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넘어 노동자가 자신의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인권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지역시민과 노동권의 만남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이 지역사회로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토론4] 연대와 인권운동 연대로 운동의 지향과 전략 담기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권현안 대응활동으로서 연대가 주요한 활동방식이었다. 이러한 연대활동에 대한 고민은 2007~8년 진행된 조직 내부 중장기 전망논의 과정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면화를 위한 연대전략'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2~3년 20주년을 맞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전망 수립을 위한 운동전략 논의로 이어졌다.

운동전략 논의 과정에서 사랑방을 주어로 놓고 논의하는 대신 '체제변혁'이라는 지향과 관점으로 활동을 돌아보았고, 기존의 구획된 권리 영역에서 벗어나 운동의 영역을 가로질러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사랑방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외부화하는 대신 운동전략, 연대전략의 구상과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노동자 조직화 활동 '월담', 차제연(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확대재조직, 기후정의동맹 등을 통해 '인권'과 '권리'를 저항과 주체적 언어로 세울 수 있는 조직화와 변혁운동의 모색과 실천으로 모아지고 있다. 오늘 논의되는 지역인권운동, 노동인권 등도 연대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전략과 성과라기보다 어떤 지향과 방향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서른.
 누군가에게는 잔치가 끝난 시기*이고
 누군가는 머물러 있지 않은
 청춘과 매일같이 이별*하는 아쉬움으로
 누군가는 어디에, 어떤 얼굴로 서서,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 노래했다.

서른. 다산.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저항과 변화의 주체를 세우는 운동,
 지금을 넘어 선 세상을 함께 그리는 연대.
 잔치는 끝나고 청춘과는 이별할지 몰라도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지 않도록,
 빈 가슴마다 울려나던 참된 목소리를
 울리며, 다산은 여전히 나아갈 것이다. 🏠

-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 * 김광석, '서른 즈음에'
- 백창우, '나이 서른에 우린?'







내일의 인권밥상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30년간 매일매일 인권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인권의 현장을 누벼왔다. 과도한 공권력이 남용되는 집회 현장, 혐오선동 세력에 편승하여 반인권적 법과 조례를 만드는 국회와 지역 의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공장,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거주지, 혐오와 차별이 공기처럼 퍼져있는 일상의 공간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곳이 인권의 현장이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침해를 최대한 회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다시는 똑같은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제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권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좀 더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다산의 현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다산이 필요한 곳이라면 영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향후 종합인권단체로서 다산이 좀 더 집중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맛집의 메뉴를 새롭게 바꿔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좀 덜 뜨거운 지구를 위한, 좀 더 푸른 밥상

가장 먼저 위기를 넘어 이제 참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올 여름 전세계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다. 몇 달째 이어지는 엄청난 산불,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가뭄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도 힘든 여름을 보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는 이 위기에 책임이 덜한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기업과 정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다산은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연대체에도 함께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격주로 수원역 광장에서 기후정의와 관련된 주제로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 기후위기 대응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되 지역단체로서 지역 상황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연대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과 존엄의 밥상

2020년 초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고,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무서운 사실은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전세계를 다시 덮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열대우림 파괴로 인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병원균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한국 정부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제한하였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후 다산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으로 감염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에 따라 과도하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비슷한 방침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 그 대응이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응은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2021년 비전 간담회에 함께했던 한 참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도 다산이 잘해왔던 거 쪽해나갔으면 좋겠다.” 과연 다산이 잘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것이 인권의 문제인지 헛갈리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을 북돋으면서 지치지 않고 인권활동을 이어가는 것 아닐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산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현실에서 치열하게 인권을 지으며 싸울 것이다. 그게 가장 다산다운 모습일 테니까! 🏠

둘러앉은 밥상
-2022년 활동가들의 마음



서로 돌보는 일
밥 한끼에서 시작되는 운동

매일 점심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일까?



랄라 울적할 때 요리하면 기분이 좋아져. 새로운 요리를 하는 게 즐거워. 맛나고 좋은 것 같이 먹으면서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

찐 음악을 틀어놓고 점심을 준비해. 정신없이 바쁠 때는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들이는 시간이야.

아샤 집에서 일품요리로 해 먹는데, 밥 당번일 때는 레시피 찾아보며 몇 가지 음식을 할 때가 있어. 여러 반찬을 놓고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

라이언 오래 자취해서 요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활동가들이 차린 밥상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어. 그래도 맛있는 음식 해서 같이 먹으니 즐겁고 재밌어.

찐

랄라가 마라탕을 점심상으로 차린 적이 있어. 이런 요리를 사무실에서 한다고? 처음엔 놀랐어. 며칠 전 밥 먹으며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했던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에게 점심밥을 짓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해.

라이언

활동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안 먹는 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 활동가들의 입맛을 생각하면서 밥을 준비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거야.

쌤통

밥 먹자, 상 닦아 줘, 손가락 올려줘, 라고 할 때 마음이 곰실곰실해져. 다산인권센터는 밥, 식사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 30주년 주제를 인권맛집으로 정하면서 '다산스럽다'고 생각했어. 심야식당, 만두잔치 등 그동안 식사와 연결된 활동도 해왔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마주 앉아 이야기 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 서로에게 나누려는 마음, 공동체성을 넓혀가려는 마음이 큰 거지.

함께 먹는 게
어떤 의미일까?



활동가들이 차려낸 밥상은 집밥 범위 내에 있다. 겨우내 먹고 남은 김장 김치로 끓인 찌개,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쌈채소와 강된장, 카레 등 집에서 차린 밥상과 비슷했다. 활동가의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끓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것은 식물성 밥상이다. 채식하는 활동가들의 밥상이다. 든든한 한 끼에 인권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랄라 활동가의 삶이 긴장과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이잖아.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 하더라고. 몇 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 뛰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최근에는 이른 아침에 맨발로 걷고 있어. 땅의 촉감이 좋아. 발바닥에 굳은살이 잡힐 때마다 내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좋고. 30주년의 무게가 무겁 게 느껴지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돼. 걸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나 를 위로하고 있어.

찐 천안에서 기차로 출퇴근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 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의제나 활동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 한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 가 다산인권센터에 들어오니까 지역도, 활동 방식도 모든 게 낯설고 적응하는 데 부담이 있어. 기차 안에서 책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챙겨. 책을 보는 시간이 나를 직면하는 시 간이야.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든 활동이든 회피한 시간이 있었는지 나를 들여다봐. 나에 게 집중하며 생각하는 시간이야.

쌔똥 힘들 때마다 회피하는 수단이 잠이었어. 어렸을 때 머리 아파, 배 아파 엄마한테 말하면 자라고 그랬거든. 여행하면서 걷는 즐거움을 알았어. 활동가들과 한 달에 한 번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충만감이 차올랐어. 동네 산책길을 걸으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요즘은 이른 아침 일어나 명상 아닌 명 때리기 시간을 가져. 나를 충전하 는 시간이야.

야사 처음 다산인권센터에 와서 신나게 재밌게 활동했는데 작년부터 내 운동이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확 불타올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 짜게 식은 것 같 은 느낌. 전에는 산에도 가고 요가 하면서 풀어냈는데, 좀 더 몸 쓰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년 안식년에는 백두대간을 다 다녀볼까 해. 몸 쓰는 걸 하면서 나를 돌보려고 해.

라이언 박광온의원 사무실 점검 농성할 때 주변에서 꼭 그렇게까지 농성해야 하냐고 말했을 때 마음이 힘들었어. 활동가의 삶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도 들었어. 함께 했던 활동가들 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어. 쌔똥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 바빠요? 지금 시간 괜찮 아요? 내가 그런다고. ㅎㅎㅎ 마음의 부침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아.





쌤통
선지영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05년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가로 들어오면서 같은 공간에 있던 다산인권센터와 연을 맺었다. 2001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낙천낙선운동을 보면서 활동하는 삶을 생각했다. 그렇게 활동가로의 길로 들어섰다. 옆의 단체였던 다산인권센터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사회복지와 인권’이 활동의 중심이 됐다. 2020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로 들어왔다.

세월호운동을 하면서 ‘화남, 슬픔이 운동으로 나를 밀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했다. 그 질문의 끝에 ‘인권’이 있었다. 시민단체에서의 인턴활동, 청년공익활동을 기획하면서 ‘타고난 품성’이 활동가의 삶으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2022년 1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꿈을 이뤘다.

라이언
이경엽



음악치료를 공부한 뒤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수원 여성희생전화에서 활동했다. 지역 연대 활동을 통해 다산인권센터를 만났다.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으로 시선이 확장됐다. 2015년 상임활동가로 들어왔고, ‘기후정의와 인권’을 주제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날다람쥐처럼 산을 잘 탄다.



아샤 정유리



찐
진경아

“왜 그렇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어느 것 하나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고난 반골기질은 자연스레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졸업 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고, 지역신문에 기자로 잠시 몸담기도 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와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힘은 당사자가 직접 활동하고, 변화의 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때 손 내밀어준 곳이 다산인권센터다.



랄라
안은정

학생운동을 하면서 운동가의 삶 이외에 다른 꿈은 꾸지 않았다. 2010년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인권 교재를 만들었을 때 다산인권센터를 만났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2011년 다산인권센터에서 반상근을 시작했고, 다음 해 상임활동가로 함께 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활동가들이 깜짝 놀랄만한 상차림을 거뜬히 내놓는다.

저절로 익는 것은 없다
199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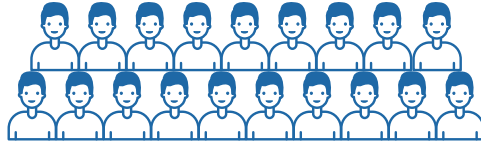


30년전통 인권맛집을 만들기까지

다신이 걸어온 길

30년간 다신인권센터의 역사를 만들어온 활동가들

22명



1992



김철준·김동균
합동변호사
사무실 내
인권상담실로 창립

사회복지권리
영역으로
활동 확대

1996



인권상담실에서
인권상담소로 전환

인권 일반영역으로
활동 확장

인권상담소에서
인권운동단체로 전환모색



노동사안 상담 및
사국사건
당사자 법률구조 활동



상담실장체계에서
소장 체계로 변환

2022



상임활동가
5인 활동체제

2016



처음으로 상임활동가
공개채용

활동가 충원의 필요성과
새로운 활동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감

2013



『인권교육 온다』 창립



행궁동으로 사무실 이전

김철준	오세범	허선	윤은희	송원찬	노정희
박진	송주현	여운철	노영란	정상용	토리(박김형준)
최성규	메달(김경미)	허기저(안병주)	김산(김진태)	랄라(안은정)	아샤(정유리)
사월(이진아)	쌤통(선지영)	찐(진경아)	라이언(이경엽)		

2000



다산인권센터로
명칭 변경



자유권·사회권 등
구체적 인권영역으로
활동 확장

인권운동단체로서
전문성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2002



직제를 폐지하고 수평적
상임활동가 체제로 전환



정관 및 내규 및
마련 등을 통해
조직 체계 정비

독립적 공간에
대한 필요성 공유

2008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산에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감



매교동으로
사무실 이전

2004

원천동으로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다산으로부터
공간적 독립)

주요 활동

1992

- 8월 28일 김칠준 김동균 합동변호사사무실 내 인권상담실로 창립
- 노동사안 상담 및 시국사안 법률구조 사업 활동
- 노동조합 노동법 교육활동

1996

- 인권상담소로 전환
- 사회복지(사회복지권리)사업으로 활동 확대
- 아파트공동체 운동 시작
- 제1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1997

- 아파트시민학교 개최
- 사회복지 대학 개최
-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

1998

- 인권교육활동 시작
-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 참여
- 사회복지대학 개최
- 노인주간활동
- 제3회 인권영화제 개최

1999

- 제1회 인권평화학교 개최
- 경기복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청소년 학교밖문화제' 개최
- 제4회 인권영화제 개최

2000

- 다산인권센터로 단체명 변경
- 청소년 인권교육 활동
- 주간 [다산인권]팩스신문 발행
- 국가보안법폐지 명동성당 단식농성 참여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2001

- 청소년인권캠프, 모의법정 대분공모사업 등으로 청소년인권 활동 집중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경찰인권침해 캠페인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연대 활동

2002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월례 인권포럼 개최
- 아동노동착취반대 월드컵캠페인 활동
- 수원지역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및 청소년모의법정 대본 공모사업 실시
- 고 심미선, 신호순 미군장갑차압사사건 대응 활동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회원 소식지 [몸살] 발행

2003

-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 전국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모의법정대본 공모사업 확대 진행
 - 제8회 인권영화제 개최
- 한총련합법화 경기대책위 활동 및 아주대 자주대우 조직조작사건 대응
- 수원남부경찰서 의경자살사건 대응 활동
 - 경제자유구역저지 경기대책위 및 인권단체 경제자유구역저지대응팀 활동
-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추가파병반대 인권단체 공동대응 활동
 - 네이스반대 단식농성 활동
 - 수원반전평화연대 활동

2004

- 삼성노동자감시 통제와 노동기본권탄압분쇄 경기공대위 활동
 - 국가보안법폐지경기연대 활동
- 청소년모의법정대본공모사업 진행
 - 제9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고 김선일 추모와 이라크파병반대 시국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 전범민중재판 활동 등 반전평화연대 활동
- 한원cc경기보조원 노동기본권대응 및 이마트 노동탄압 대응
 - 건설노조공안탄압대응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참여

2005

- 청소년인권학교 '천기누설' 진행
 - 제9.5회 인권영화제 개최
 - 안티삼성문화제 공동개최
 - 경찰폭력대응팀 활동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
 - 평택 대추리 지킴이 활동 및 평화적 생존권 쟁취 활동
- 매주 금요일 평화와 생명을 위한 길바닥행동 (수원역) 진행
 - 평택청소년문화센터 인권교육사업,
 - 수원정신보건센터 회원 인권교육 진행

2006

- 경기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 및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
 - 평택 대추리 지킴이 활동
- 터키이주노동자 코스쿤 쉼림사망사건 공대위 활동
 - 경기지역 용역폭력대응팀 활동
- 삼성 세콤 에스원 대량해고관련 대응 활동
- 수원공군비행장 열화우라늄탄 현황 공개 및 폐기를 위한 대응활동
- 수원정신보건센터,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활동
 -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2007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투쟁
-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후 삼성비자금 대응 활동
 - 경기이주 노동자 공동대책위 활동
 - 뉴코아 이랜드 비정규직 대응 활동
 -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활동
 - 광우병위험최고기 감시단 활동
- 인터넷 라디오 방송 인파속으로 시작
- 다산인권센터 15주년 후원의 날 개최

2008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화 반대 활동
 - 4대강 운하반대 여주 남한강 기행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활동
 - 수원 반딧불 인권 영화제 개최
 - 인권과 함께 떠나는 가을 라디오 캠프
-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 매주 수요일 수원촛불 수원시민대책위 활동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감시단 활동

2009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활동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
 -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 지원활동 (이후 반올림 활동으로 전환)
- 다산인권센터 라디오방송 '인파속으로' 2주년 공개방송
 - 일제고사반대 공동행동
 - 수원촛불 1주년
 -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투쟁
- 수원신동 철거민투쟁 지원 활동
 - 4대강 공사 반대 투쟁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 지역운동포럼in수원

2010

- KCC 수원공장의 석면건축물 철거에 대한 중단 활동
 - 집시법 개혁 반대 활동
- 정신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정있네' 활동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반올림' 활동
 -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한 '시선을 넘어 희망의 페달로' 자전거 여행
 - 4대강사업 중단 이포보 농성 지원
 - G-20 반대 활동
 - 지역운동포럼in수원

2011

- H(human).E(education).A(atonomy).D(democracy) 활동시작
 - 인권아카데미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자유토론회
 - 아주대 청소년노동자 지원활동
 - 희망버스 참여
- 남양주 가운고등학교 무더기 자퇴강요 대책활동
 - 금속노동인권교재 발간
 - 경기지역 반빈곤 워크샵
 - 한미FTA폐기 촛불
 - 지역운동포럼in수원
 - 경기희망김장

2012

- 에버랜드 노동자 김주경 사망 대책위 활동
 - 노동인권강좌 진행
-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인터뷰 집 '사람꽃을 만나다' 출간
 - 20주년 홈커밍데이
- 20주년 기념 특별강좌 '민주주의와 인권'
 - '화성 팔탄 공단 폭발사건 대책위 활동
 - 'SJM 용역폭력사건 지역대책위 활동
- '강력범죄, 대책은 무역인가' 토론회 공동주최
 - 20주년 축하 인권콘서트 '그 사람 스무살, 인권이웃는다'

2013

- 삼성 불산 노출 사고 대응활동
- SJM 조합원 노동인권 교육활동
- 경진여객 박요상 버스기사 해고 대응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활동
-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노조탄압분쇄 경기지역공대위 활동
- 수원지역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활동
 - 밀양 765KV 송전탑 관련 활동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
 - 소위 '내란음모'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활동

2014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대응활동
-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인권침해 대응활동
 - 경진여객대책위 활동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대응
 - 군대내 집단 따돌림 사건 피해자 지원
 - 세월호 참사 대응활동
-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응활동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변경 활동

2015

- 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대응활동
 - 수원 지역운동포럼 진행
 - 세월호 참사 대응활동
 - 재난참사기록모임 진행
-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대책단 보고대회
 -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모임 진행
-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수미네) 활동
- 국정원 파헤치기 강좌 & 국정원 규탄 날들이

2016

- 총선대응 '수원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활동
 -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 벚바리와 함께하는 심야식당
-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수미네) 활동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투쟁
 - 자원활동가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및 오렌지 인권상 시상식 진행
 - 토론회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
 - 강남역 살인사건이 남긴 질문들' 진행
- 경기/수원지역 백남기 농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시민분향소 설치 및 운영

2017

- 박근혜 퇴진 수원시민촛불문화제
-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과 약속의 수원콘서트
- tvN 혼술남녀 이한빛PD 사망사건 대응 활동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및 대응 활동
- 영화 '공범자들' 수원지역 공동상영회
 - 수원 군공항 폐쇄 활동
 - 촛불 1주년 인권궐기대회
 - 차별금지법제정 제정 활동
- 이주민구술생애사<담> 프로젝트 '담을 허물다' 출간

2018

- 경기이주공대위 활동
-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활동
- 이재용 구속촉구 시민 촛불 문화제
- 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응 활동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 집시법 11조 폐지 활동

2019

-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활동
- 반차별자원활동가 모임 진행
- 수원시 인권정책 및 인권기본조례 관련 활동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활동
-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사망사건 대응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대응 활동
-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2020

- 집시법 제11조 폐지 대응활동
- 경찰개혁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활동
 - 수원4.16운동기록집 '그날 이후 멈추지 않았다' 발행
- 재난기본소득 이주민 배제 대응 활동
-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진행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차별금지법제정 활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활동

2021

- 속행(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응활동
 - 코로나19 의료공백실태조사단 활동
-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집단감염 실태조사 활동
 - 미안마민주화운동연대 및 지역활동
- 코로나19 집회시위권리보장 관련 활동
 - 기후정의버스 참여(새만금, 태안)
 -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발행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활동
- 경기-수원지역 기후위기 대응 포럼 진행

2022

-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박광온 의원 점거 농성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 화물노동자 파업지지방문
 - 대우조선해양 파업 긴급 대응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기금 모금
 - 기후정의동맹 활동

달보다 늦게까지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두런두런 대화 소리와
탁탁탁 키보드 자판 소리로
온종일 소란스러웠던 인권맛집의 일과에도
마침표가 찍힌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과
약간의 피로감을 안고 사무실 문을 나선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인권의 이슈를 마주치게 될까?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는 듯 둥근 달이 인사를 전한다.
“걱정 마. 내일도 잘할 거야. 굿나잇!” 🏠

지난 30년
가진 것 없지만 용기 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당당함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이 아닌
시민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산인권센터가 지어갈
내일의 '인권'이 됩니다.



다산인권센터 후원 계좌

기업은행 111-199577-04-014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28 2층
031-213-2105
www.rights.or.kr

“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